테라, 신규 던전 '벨리카 지하 관문' 추가

김태만 /2017-01-12 17:05:49

넥슨(대표 박지원)은 12일 자사가 서비스하고 블루홀(대표 김강석)이 개발한 MMORPG ‘ 테라 ’ 에 신규 던전 ‘ 벨리카 지하 관문 ’ 을 업데이트했다.

2017년 신규 시즌의 서막인 ‘ 벨리카의 지하 관문 ’ 은 게임 내 대도시 중 하나인 ‘ 벨리카 ’ 의 숨겨진 공간으로, 거대한 힘을 지닌 누군가에 의해 큰 위협을 받는 스토리가 펼쳐진다. 해당 던전에는 최대 7명이 입장할 수 있으며, ‘ 카바도르 ’ , ‘ 프리키온 ’ , ‘ 벨데그 ’ 등 강력한 몬스터와 보스가 등장한다.

이 곳에서는 ‘ 벨데그 ’ 신규 장비를 획득할 수 있으며, 상위 던전 ‘ 무너진 벨리카 지하 관문 ’ 에서는 신규 액세서리 및 신규 장비 ‘ 철기장 - 냉혈 ’ 의 제작 재료를 얻을 수 있다.

이와 함께 ‘ 어둠의 동굴 ’ , ‘ 캘리반의 돌격선 ’ 등 4개의 던전을 재 오픈, ‘ 벨데그의 갑옷 ’ 을 포함한 다양한 장비와 액세서리 등을 획득할 수 있다.

넥슨은 업데이트를 기념해 2월 16일까지 신규 유저의 원활한 던전 플레이를 위해 5회 이상 던전을 완수한 숙련유저가 미숙련 유저와 던전에 함께 입장할 경우 ‘ 12단계 강화 주문서 ’ , ‘ 아티팩트 조각 ’ 등 다양한 아이템을 지급한다.

또, 이달 25일까지 던전 플레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 시,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‘ 넥슨캐시 ’ 를 선물하는 ‘ 테라 매드무비 결정전 ’ 이벤트를 진행한다.

이 밖에도 다가오는 테라 6주년을 기념 이벤트의 시작으로 2월 19일까지 총 6주간 매 주 주말마다 접속 시간에 따라 최대 세 가지의 아이템을 지급하는 ‘ 주말버닝 ’ 이벤트를 진행한다.